



해외농약뉴스

GIFAP, 지역망 체제로 조직개편

6개 지역협회 결성, 명칭도 GCPF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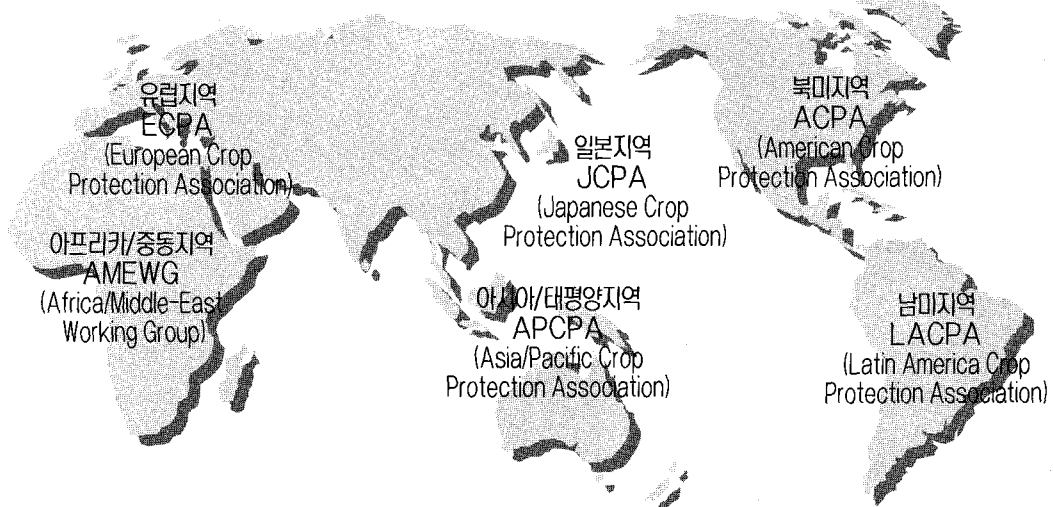
각국 농약공업협회의 국제모임인 GIFAP(세계농약공업 연맹)이 그 명칭을 GCPF(Global Crop Protection Federation, 세계작물보호연맹)로 변경한다고 11월 7일 발표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지역망체제와 관련, 이미 지역별로 개편된 아프리카/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 일본, 남미, 북미 등 6개 지역협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전세계 농약산업에의 공헌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GCPF의 사무총장인 K. P. Vlahodimos씨는 "이번의

이같은 변화는 우리가 일반대중에게 지속적 농업에 있어서 작물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단체에 적극 대응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GCPF는 앞으로 ▲현대과학과 기술의 이용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의 추구 ▲증가하고 있는 세계인구의 부양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회원간의 연대 강화, 정보제공(특히 IPM, ICM의 시행), 안전사용 교육훈련 등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GCPF의 지역망 체제





해외농약뉴스

조직개편에서 GCPF는 내부에 총회와 GCPF의 실무를 전담할 실무네트워크를 두는 한편 IPM, OECD, PIC, FAO 세계정상회의, 농약재고 등 5개 국제프로젝트팀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살서제 등 4개 저항성대책위원회 및 △기술·과학·규제 △제조 △정책·무역 △정보 등 4개 기능네트워크를 별도로 두고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정보전달 기능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 후발농약 규제완화 찬반논란

행정개혁위원회 규제완화 소위원회가 지난번 가진 제5차 “규제완화에 관한 논점공개”는 국내외 농약수요의 한계, 국제경쟁의 심화, 농약가격인하에 대한 압력이라는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농약업계에 더 큰 문제를 안겨주었다.

농약생산자재의 규제완화를 둘러싼 의견 등에서 특허기간이 완료된 농약의 등록간소화 요구가 있었다. 이 논점공개는 그 주제에서 보듯이 개별규제조치에 대한 찬반양론을 편 것으로 직접적인 규제조치의 완화나 폐지에 관련된 것은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커다란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 농약은 품질의 적정화와 안전사용 확보는 농약취체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가공, 수입한 농약에 대해서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약해,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발업체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도 신규등록과 같은 시험성적서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특허권의 유효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완

료된 농약도 현행 농약취체법 규정에는 새로 개발된 농약과 같은 시험결과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제5차 논점공개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측은 “규제는 값싼 농약의 공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종료된 농약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신청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규제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안전성을 평가한 농약과 후발제품의 제조방법, 유탄불순물의 함유량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성 시험 등의 간소화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가 실시된 이후 일본농업은 한층 더 어려워진 국제경쟁 속에서 생산가격의 인하가 절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계가 농약 등의 농업자재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규제완화를 원하는 측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것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농약에 있어 최대의 명제는 안전성 확보에 있다.

즉, 사용현장의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후발제품의 경우 기등록 제품과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확한 안전성 확보책이 없는 규제완화는 한층 더 불안을 줄 수도 있고 농업계에도 커다란 마이너스의 영향으로 되돌아올 염려가 있으며 선발업체의 개발이익 감소로 신농약 개발의욕이 떨어지거나 농약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해외농약뉴스

영국의 과수용농약 사용현황

1994년 영국의 과수용농약 사용면적은 17만ha로 이중 살균제가 전체처리면적의 59%, 제초제 24%, 살충제 8%, 응애약 7%, 달팽이약 등이 2%를 차지했다. 주요 처리 살균제로는 디클로플루아니드, 클로로타로닐, 부피리메이트, 웨나리몰, 이프로디온 등이며 씨마진, 파라콰트, 다이콰트/파라콰트, 이속사벤과 나프로피미드 등의 제초제 5종이 전체 제초제의 50%이상을 기록했다.

살충제로는 웨너트로지온이 전체 살충제의 3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클로르피리포스, 피리미카브 순이었다. 가장 널리 사용된 응애약은 엔도살판과 펜프로파스린이며 달팽이약으로는 메치오카브와 메타알데히드가 주로 사용됐다.

산도스, 바스프에 제초제사업부 매각

산도스사가 옥수수용 제초제사업부를 바스프사에 운영자금 8천3백만달러를 포함, 총 6억9천5백만달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도스사와 사바사가 합병, 노바티스사를 설립하기 위해 미연방무역위원회(FTC)에 제출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매각은 합병의 마무리와 다른 몇가지 상황에 따라 금년말이나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병에 대한 FTC의 승인은 가을말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도스사는 응애약을 취급하는 북미사업부를 4천만달러에 캘리포니아계 회사에 매각키로 동의했다. 이 매각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디캄비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반벨, 클라리티, 막스맨)을 포함한 산도스

사의 옥수수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권리와 디메손아미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프론티어, 가드스맨)에 대한 전세계적인 권리도 함께 갖게 된다. 이 합병에는 산도스사가 디캄비를 계속해서 북미에 공급하게 될 텍사스의 산도스사 제초제 제조시설도 포함된다.

바스프, 1996년 12% 성장 예측

바스프사는 올해 농약판매액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15억2천5백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신제품 개발에 의한 것으로 특히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제초제, 살균제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초제와 살균제인 오푸스(에폭시코나졸)의 판매신장으로 1996년 상반기동안 판매액이 16%나 증가했다. 독일과 북유럽에서의 살균제 판매는 부진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판매호조를 보였고 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판매성장은 느리지만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농부들의 재정사정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증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바스프사의 주요 시장이다. 하지만 살충제에서 저조한 바스프사가 시장의 3분의 2가 살충제인 아시아 지역에서 거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스프사는 현재 연간 0.7개의 유효성분 개발에서 2003년까지는 연간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바스프사는 인도에 2백30만달러를 투자하여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싸이퍼메스린과 살균제 카벤다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연간 바비스틴액제 1백5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농약정보**